

'관광객에게는 친절함을 시민들에게는 불편함을'

“밤 시간 버스정류장 불 켜지지 않아” 시민 불만 제기 속
전주시, 2억원 넘는 예산 들여 1개소 버스승강장 개선 추진
1090곳 중 유계승강장은 698개... 나머지 중 209개는 '노상'
시, 시민들 불편사항 개선 지적에 “일부는 개선책으로 계획”

“밤 시간 버스승강장이 너무 어두워
요 혼자 있을 땐 무섭기도 합니다”
경기도에 살다가 2년전 전주로 이사
온 한모씨가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버스정류장에 빛을...’이라는 제목으로
남긴 민원이다.
밤 시간 버스정류장에 불이 켜지지
않은 곳이 많아 ‘무섭다’고 표현한
한씨는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
람은 상관없겠지만 대중교통 이용자
는 정류장이며 거리까지 어둡다면 위
협에 노출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
고 있다.
한씨의 사례와 같이 전주시의 많은
버스승강장이 충분한 예산 등의
문제로 허술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1개소의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전주시는 총 2억3,000만원을 투
입해 조선왕조를 간직한 태조 이성계
의 숨결과 정취가 묻어있는 오목대와
태조어진이 모여있는 경기전 주변에
위치한 ‘오목대·한옥마을 승강장’을
전주의 역사와 예술이 가미된 승강장

으로 조성했다.
지역예술가들이 제작에 참여한 이
승강장은 태조 이성계와 그의 고조
부인 이안사의 역사와 설화를 모티
프로 삼고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꽃
창살 문양으로 승강장 패널이 제작
됐다.
또 꽃창살 사이에는 짧은 지역 예술
가의 손길이 더해져 새롭게 형상화한
태조어진본안행렬도가 새겨졌다.
승강장 천장부분에는 태조 이성계가
남원 황산에서 왜구를 물리치고 돌아
가다 승전잔치를 베풀었던 ‘오목대’
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성계의 새나
라 건국에 대한 포부’와 관련된 이야
기를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해 한옥마
음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이해
를 돕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승강장에는 QR코드가
부착돼 관광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이
를 스캔하면 한옥마을 관련 스토리텔
링과 태조 이성계의 오목대, 목조 이
안사의 이목대 등을 열람할 수 있도
록 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관광객을 위

한 지역 문화 홍보도 중요하지만 줄
곧 지적된 시민들의 불편사항부터 개
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실제로 전주시내에는 총 1090개의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이중 유계승강
장(지붕 등이 있는 승강장)은 698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392개 승강장은 시민이 이용
하기에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이 중 183개소는 지주형(일명
홀대 안내관), 209개는 버스 승하차만
이뤄지는 ‘노상승강장’이다.
더 나아가 698개 유계승강장 중 LED
등 조명이 설치된 곳은 지난해 말까
지 172개에 불과하고, 올해 10개가 추
가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시는 예산부족과 버스이용객
부족 등을 이유로 점진적 개선 추진
을 해 왔는데, 일부에서는 고액의 예
산을 이런 부분부터 사용하는 게 올
바르지 않냐는 지적을 제기하는 것
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승강장 설치는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
마을 주변 시내버스 승강장이 조선왕
조의 건국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탈바꿈했
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일부의
지침은 계속 추진사업으로 점차 개선
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말
했다. /인재용 기자



‘용감한 전복인’ 시상 22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용감한 전복인’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 8명을 초대해 감사패와 격려금을 전달했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실태조사 착수

전주시, 통신업체 대상 조사·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회

최근 콜센터 상담원과 매장 판매원
등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
권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전주시가 감정노동자들의 인권보
호를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도내 최초로 감
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해 삶의 질을 향
상시키기 위해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도 제정했다.
전주시는 22일 현대해상 회의실에서
‘전주시 통신업체 감정노동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전주시
소재 통신업체와 항공사, 손해보험사
등 7곳의 콜센터에 근무하는 감정노

동자 1,825명의 근로조건과 인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기로 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정
노동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에 이어, 내년에
는 2단계로 대상을 시 소속 감정노동
자와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1,100명
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2019년에는 3단계로 관내
마트 40곳과 은행 90곳, 병·의원 993
곳, 학교 147곳, 어린이집 680곳, 유치
원 42곳, 사회복지시설 746곳 등 3,297
개소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 감정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업무환경 및 특징을 정
확한 파악하고, 노·사·민·정 협력

방안, 근로환경개선, 권리보장교육,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등
의 제도화를 이끌어내 감정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용역 외에도
찾아가는 인권교육과 감정노동자 권
리 보호를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
성 캠페인, 콜센터 감정노동자 마음치
유 프로그램 등도 지속 운영할 방침
이다.
전주시 심상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감정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
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을 수렴해 감정노동자들이 보다 건
건하고 친인권적인 근로문화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경찰청, 하반기 총경급 인사 단행... 전북, 23명 교체

경찰청은 23일
자로 정재봉 전북
지방경찰청 청문
감사담당관을 경
무과장에 임명하
는 등 총경급
287명에 대한 하
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정재봉 경무과장 박달순 총무담당관 유운상 112종합실장 김성재 경비교통과장 김태형 여청과장

박정환 치안지도관, 교육 발령
박성구 등 5명은 공로연수



박정환 치안지도관 김성중 형사과장 이정철 치안지도관 최홍범 청문담당관

이번 인사를 통해 박달순 총부청
청문감사담당관이 전북청 홍보담당
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유운상 전남
청 강진서장이 전북청 112종합상황
실장, 김성재 강원 평창출입국관리
단장이 전북청 경비교통과장, 김태
형 제주청 여성청소년과장이 전북
청 여성청소년과장, 정재봉 전북청
청문감사담당관이 경무과장, 박정
환 전북청 경무과장이 보안과장, 김
성중 익산시장이 형사과장, 이정철
경대 치안정책연구소 기획운영과장
이 전북청 치안지도관으로 각각 임
명됐다.



송승현 생안과장 박주현 정보과장 함현배 덕진서장 최원석 군산서장

또 함현배 전북청 정보과장은 전
주덕진서장, 최원석 전북청 여성청
소년과장은 군산서장, 이상주 전북
청 형사과장은 익산시장, 임상준 전
북청 경비교통과장은 남원서장, 박
훈기 전북청 112종합상황실장은 김
제서장, 이동민 전북청 보안과장은
부안서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교육을 마친 최홍범과 송승현, 박



이상주 익산시장 임상준 남원서장 박훈기 김제서장 이동민 부안서장

주현 총경은 전북청 청문감사담당
관과 생활안전과장, 정보과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박정환 전북청 경무
과 치안지도관은 교육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박성구 전주덕진서장과
김동봉 군산서장, 황종택 남원서장, 황
대규 김제서장, 강현신 부안서장은 공
로연수에 들어간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전주시가 개성공단 철수 후 전주로
내려온 봉제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지
원하고 나섰다.
시는 22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구
직자와 구인업체가 직접 만나 현장면
접을 진행하는 ‘제5회 구인·구직 만남
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일자리행사의 참여업체는 전주
시 팔복동에 위치한 ㈜베스트프랜드
플러시로, 이번 현장 면접에서는 전주
시민 중 생산직을 희망하는 58세 이하
중·장년층 구직자 40여명이 참여해
총 20여명 채용이 확정됐다.
특히, ㈜베스트프랜드플러시는 작년
2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폐쇄 조치
로 인해 터전을 잃고 전주로 다시 내
려온 유아복 제조업체로, 올해 공장을
신축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다.
이 업체는 팔복동 1산업단지 신축공
장을 지어, 올해 11월부터 공장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며, 현장면접에서 채용된
구직자는 오는 7월부터 기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신축공장 공사가 끝난 이
사해 근무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박해정 행정국장 허희준 관장 고광휘 관장 최인숙 총무부장



고광록 관장 김성화 관장 김종명 감사담당관

도교육청,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

내달 1일자로 489명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7월 1일자로 3급 부이사관 승진 1
명, 4급 서기관 승진 1명을 비롯 지
방공무원 승진 77명과 전보 275명,
신규임용 15명, 공로연수 및 명예퇴
직 등 총 489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지방공무
원의 승진자는 교육행정 3급 1명, 4
급 1명, 6급 24명, 7급 17명과, 전산,
사서, 시설, 공업, 사무운영, 시설관
리, 전기운영 등 77명이다.

지방부이사관은 박해정 김제교육
문화회관장이 도교육청 행정국장으
로 승진 발령됐으며 허희준 마한교
육문화회관장이 전북교육문화회관
장, 고광휘 행정국장이다 마한교육문
화회관장으로 발령됐다.
지방서기관은 최인숙 사무관이 전
북교육연수원 총무부장으로 승진 발
령됐으며 고광록 부안교육문화회관
장이 김제교육문화회관장으로, 김성
화 감사담당관 감사팀장이 부안교육
문화회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어
김종명 교육연수원 총무부장이 감사
담당관으로 발령됐다. /정해은 기자

호지지구대, 하절기 맞아
순찰차 탐재장비 일제정비

전주완산경찰서 호지지구대(대장 박
현규)는 22일 하절기를 맞아 순찰차
탐재장비를 일제 정비해 여름철 출동
장비 위주로 교체했다.
박현규 호지지구대장은 “온난화로 인
해 여름철이 빨리 찾아와 익사사고로 인
한 신고출동 시 인명구조에 필요한 구명
환, 구명조끼, 로프와 강력사건 신고 시
출동장비 등의 수량과 상태를 재점검 해
사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기자

평화파출소, 교통안전교육 실시

전주완산경찰서 평화파출소(소장 양
춘원)는 22일 평화파출소에서 관내 어
린이집 원생3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에서 아이들은 경찰관들과
함께 직접 횡단보도를 건너보는 체험
으로 교통안전을 몸으로 익히는 시간
을 가졌다. /이상민 기자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통·이장 수당 인상 정치권에 요구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의
국·도비 지원 확대와 통장 및 이장의
수당 인상 등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2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서 열린 제228차 월례회의에서 ‘유
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 국·
도비 상향 요구 건의안’, ‘통·이장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건의안’
을 채택하고 지역 현안 문제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매년 유해야생동물 피
해예방사업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국·도비 지원은 적어 지방재정에 부담
이 가중되고 있다”며 “피해예방사업의
국·도비 지원 예산안 및 지원율을 현
행 국비 30%에서 50%, 도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야생동물의 적
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
고 있는 통·이장들의 업무량은 늘어
나고 있지만 2004년 통·이장 수당이
20만원으로 인상된 후 13년 동안 물가
인상분조차 반영되지 않고 동결됐다
며 사기진작을 위해 수당을 인상하고
임명과 지위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윈스톱 할인서비스 시행

전주시설공단은 전주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할인(감면) 대상 차량에 대
해 윈스톱 서비스를 시행 한다.
윈스톱 할인 서비스는 감면 서류의
사진 등록을 통한 할인 혜택 제공으
로 출차지원 등 현장 민원을 사전 차
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공단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
에 의거해 주차요금 감면시 복지카
드, 다자카드 등 감면근거 서류를

현장확인 또는 무인주차 시스템의
CCITV 화면 확인을 거쳐 요금할인을
적용시켜 왔으며, 주차장 이용시 매번
관련 서류 또는 증명서를 제시해야함
에 따라 이는 출차지원 등 불편을 야
기해왔다.
정책할인 윈스톱 서비스는 이용자가
감면 관련서류를 전주시설공단 주
차운영부에 제출하면 접수이후 전주
시내 모든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

서류 확인없이 감면된 요금으로 출차
가 가능하다.
전주시설공단 전성환 이사장은 “이
번 전주시 공영주차장 정책할인 윈
스톱서비스 시행으로 고객민족을 추
구하고, 시스템 개선을 통한 불필요한
단순반복 업무의 간소화로 공공 서비
스의 내부 효율성을 향상시켜 가겠
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주시설공단
주차운영부(☎063-239-2643)로 문의하
면 된다. /인재용 기자